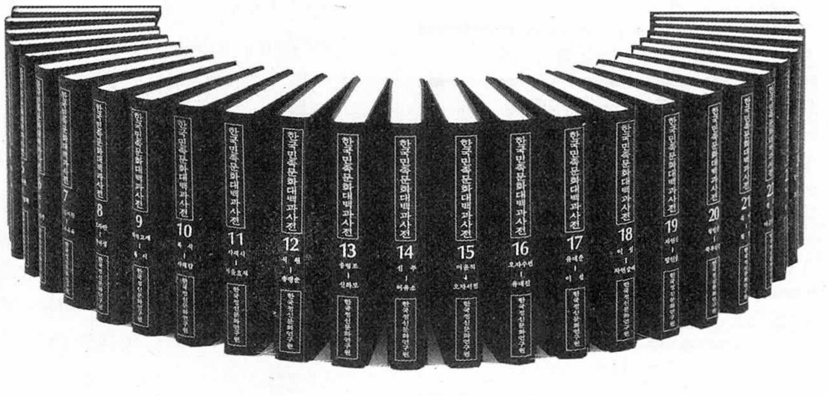
민족문화 전모 담은 한국학 백과사전

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지난 1980년부터 추진해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오랜 편찬과정을 거쳐 드디어 완간됐다. 민족문화유산과 업적을 집대성함으로써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 아래 12년간 신중하게 추진돼온 이 백과사전은, 일반 백과사전과는 달리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져 왔던 한국학 관련 분야의 제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백과사전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 대중화에도 적잖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완간전부터 학계 안팎의 각별한 기대와 주목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

지난 1980년부터 추진해온 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오랜 편찬과정을 거쳐 전27권으로 완간됐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져왔던 한국학 관련 분야의 제반 연구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수렴한 이 백과사전은 앞으로 이 분야의 대표적 참고문헌으로 필수적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완간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전27권).

'민족문화분류표' 의거해 기본 범주 설정

국배판 27권(부록 2권 포함)에 6만5천 항목, 2백자 원고지 42만장에 이르는 원고와 4만종의 도판이 수록된 이 백과사전은 집필에 3천8백여명, 편찬실무에만 연인원 140명이 동원된 大役事의 결과물이다.

정신문화연구원은 그동안 대규모의 한국학 기초자료들을 꾸준히 발간해왔는데, 특히 방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 이번 백과사전 편찬을 위해 지난 79년 대통령령으로 편찬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 학계 중진급 교수와 전문 편수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와 편찬부가 기획에서 편집제작에 이르는 전과정에 참여했다.

편찬위원회는 이 사전의 기본성격을 "전문사전이면서도 동시에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전으로서의 구실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두고 항목설정과 서술체계의 원칙을 정했다. 먼저 항목설정에 있어서는 '한국민족문화'라는 개념을 "한 민족이, 강역 안팎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생활을 개척하고 사회를 형성하며, 사고를 다져 언어를 가꾸고 예술을 창조해온 유산과 그 현대적 양상"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를 기초로 민족문화분류표를 작성해 기본 범주를 설정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동안 일관된 분류체계가 없던 한국학계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민족문화분류표는 한국민족문화를 총괄문화(민족, 강역, 역사), 외면적문화(자연, 생활, 사회), 내면적문화(사고, 언어, 예술)의 3분야 9개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이에 따른 54개의 하위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1945년 이후를 현대항목으로 설정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민족사적 관점에서 분단 이후의 북한지역 관련사항과 해외에 뿌리내린 한국문화까지 소개하는 한편, 문화의 기본이 되는 생활문화와 향토문화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각 항목은 성격에 따라 일반항목, 개관항목(기초항목), 기획항목, 향토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중 국어, 불교, 실학, 김치, 선비, 경주시와 같이 우리 고유의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항목은 특대항목으로 선정해 원고량을 늘렸다. 가장 매수가 많은 항목은 9백매의 '한국' 항목.

집필 및 서술체계에 있어서는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균형과 연계성을 바탕으로 문화체계를 정립하도록 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한국문화사의 통시적·공시적 관련성에 유념하면서 현재 국내 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학술적 설명이돼, 통설을 기준으로 아직 학설상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말미에 문제점을 명기하도록 했다.

본문서술의 전체적 구성은 사전편찬 의도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각 항목에 대한 정의, 개설, 형성 혹은 전래, 내용 및 특징, 변천 및 현황, 의의, 기타사항, 참고문헌의 순에 따라 서술됐으며 사전적 효과와 항목의 이해에 필요한 사진, 도면, 삽화, 슬라이드 등의 자료도 삽입돼 있다.

직접 제작한 도판자료 4만종 수록

서술상의 구체적 원칙으로는 먼저 한글전용의 '국민백과사전'을 지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려운 어구나 특수용어 등은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하고, 우리말이 있는 외래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일본어식 용어나 한자어도 되도록 우리말로 바꿔쓰도록 했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본문에서 풀어쓰거나 해설을 따로 붙이고, 원문인용이 필요한 경우는 번역해서 싣고 있다.

한편 집필자를 각 항목 말미에 밝히고, 내용서술의 전거 및 이해에 도움이 될 참고문헌을 수록한 것은 관련 전공자를 위한 배려로, '조선' 항목의 경우에는 연구자료 45편, 연구저서 140편, 연구논문 134편 등 방대한 참고자료가 소개돼 있다.

전체 편집상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도판자료가 전체 지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시각적 효과에도 신경을 썼다는 점이다. 사진, 삽화, 도표, 지도 등의 도판자료는 직접 수집, 촬영, 제작한 것들로 전문성을 요하거나 해외에 소재한 경우, 그리고 희소성이나 특수성을 지닌 인물·문헌 자료는 전문사진작가와 소장자의 협조를 얻어 제작했다. 이들 도판자료들은 항목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본문의 해당부분에 수록하거나 별면화보로 처리해 시각성을 높였다. 일례로 '자연재해' 항목의 경우 을축년(1925) 대홍수 당시 한강의 범람으로 침수된 서울 원효로 일대의 모습을 생생히 전해주고 있다. 아쉬운 점은 도판자료의 현장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북한소재 항목은 부득이 1945년 이전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후속사업으로 보유편과 증보개정판 준비

한국학 관계의 대표적 사전이자 참고문헌으로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에 필수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편찬사업에 착수한지 7년만에 편집이 끝나 지난 88년부터 연차적으로 간행돼왔다.

정신문화연구원은 완간 이후에도 후속사업으로 이 백과사전의 보유편과 증보개정판을 계속 발간할 계획이다.

현재 시판을 앞두고 학계 일각에서 오류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아울러 이미 작업에 들어간 후속사업 중 제1권이 발간된 88년 이후의 변화사항과 추가사항, 각종 색인, 지도·도록, 그리고 한국학 최신정보 및 참고문헌 목록을 담아 92년에서 98년까지 6권을 발간 예정인 보유편과, 보유편의 내용을 포함해 10년 단위로 증보·개정할 예정인 증보개정판 발간사업은 귀추가 주목되는 작업이다. 첫 증보개정판은 2001년 발간 예정인데, 정신문화연구원 측에 따르면 "워낙 간행시기가 길어 준비기간 중에 행정구역이 바뀌는 등의 피치못할 어려움이 많은 것이 백과사전 출판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국내외 모든 대규모 백과사전은 완간 자체가 지니는 의미도 크지만 계속적인 수정·보완작업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가에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연구원은 후속사업의 하나로 이번 사전편찬으로 축적된 지식을 활용해 분야별·성격별·계층별 민족문화백과사전과 2천년대 한국민족문화의 위상과 관련한 한국학 자료편찬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발전사업'이라 불리는 이 후속사업 중 특히 한국학 자료 편찬사업은 연구원이 그동안 간행한 각종 자료집의 성과도 수렴하면서 한국학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함으로써 국내 학계뿐 아니라 해외학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소연 기자